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866

발의연월일 : 2024. 3. 18.
발 의 자 : 박선미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하남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게 된다면 GTX-D, 위례신사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개통은 물론 미사, 위례, 감일지구의 대중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학군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계획·개발도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5대 생활권, 4대 경제 축으로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특히, 하남과 인접한 강동은 도시 성장동력인 고덕 밸리, 강동 ICT 첨단 단지로 동남권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남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하남만의 고유한 정체성, 유구한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서울의 경제개발 축이 이어져 일류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나. 하남 위례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많은 불편 속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당시 약속했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은 감감무소식이고, 거리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어 생활영역과 행정권역의 괴리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다. 하남시의 주인은 하남시민이다. 하남시민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하남시장은 서울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이에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를 결의하고자 한다.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한민국 국회, 서울특별시장, 하남시장

4. 결의안(건의안) : 붙임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문

하남시의 주인은 하남시민이다. 하남시민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하남시장은 서울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메가시티 서울론'이 대두되면서 '서울 편입'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하남시는 서울 편입을 관망하고 있다. 서울 편입이 가능한 이 시점에 공식적 여론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지난 2024년 1월, 14개동 주민과의 대화, 공식 석상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 모두 경기도가 용역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기도가 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하면 된다.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된다면 더 쉽게 일을 해낼 수 있다. 교통대책, 교육문제, 주거복지, 문화체육, 캠프콜번, H2 등 서울로 편입되면 일사천리로 문제는 해결된다.

특히, 하남 위례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많은 불편 속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당시 약속했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은 감감무소식이고, 거리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어 생활영역과 행정권역의 괴리로 '송파 편입'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리는 만무하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이제 불과 2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편입과 더불어 하남위례는 동시에 송파구로 경계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남시장의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하남시의회는 이를 찬성하고 있으나 하남시가 묵묵부답(默默不答)인 것이다.

하남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은 ‘서울편입’이다.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남시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는 경기 분도(分道)를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민이 ‘경기분도’를 선택할지, ‘서울 편입’을 선택할지, 하남시민이 직접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더 이상 서울 편입이 희망 고문, 하남시 행정의 찬밥신세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남시는 더 이상 서울 편입을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 편입에 대하여 하남시는 공식적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하남시 서울 편입이 하남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반적으로 연구용역 해야한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연구를 시작하라.

하나, 하남시장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24년 3월 19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